# 글로벌 콘텐츠 허브 '순천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활짝

**市, 열림식·입주기업 환영 세리머니**
**전국 유일 문화콘텐츠 기회발전특구**
**기업 입주공간·시민문화 공간 선봬**
**㈜로커스 창작자 100여명 등 입주**

최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린 '순천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열림식 및 입주기업 환영 세리머니'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글로벌 콘텐츠 허브가 될 '순천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공식 오픈했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순천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열림식 및 입주기업 환영 세리머니'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새롭게 조성된 문화콘텐츠 거점 공간을 선보이고, 입주기업들을 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에서 이전해 온 ㈜로커스와 지역대학 교수와 학생, 시민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 퍼포먼스, 스튜디오 투어, 공식 행사 순으로 추진됐다.

'순천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순천만국제습지센터를 문화콘텐츠 허브로 새롭게 리뉴얼한 공간이다.

콘텐츠 기업의 입주 공간을 비롯해 영상관, 오픈스튜디오 등 시민복합문화공간을 두루 갖췄다.

순천만국가정원 위에 펼쳐진 3천300평 규모의 스튜디오는 창작자의 상상력과 영감을 북돋아 줄 차별화된 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공식 오픈에 앞서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로커스의 창작자 100여명이 입주를 모두 마치고, 지역 인재 채용 등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픽사 스튜디오와 월드 디즈니 스튜디오와 같이 애니메이션을 주축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창·제작부터 유통·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호 로커스 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여정이 쉽지 않았지만 순천시 관계자와 로커스 임직원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로커스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글로벌 스튜디오로 키워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에 둥지를 틀어준 여러분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이 증명될 수 있도록 신뢰로 보답드리겠다"며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될 로커스의 이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국가정원과 원도심 두 축에 들어선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콘텐츠 기업 유치와 함께 남해안권을 아우르는 콘텐츠 인재 양성 거점기관 조성, 글로벌 IP 창·제작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순천=양홍렬 기자

# 여수시, 민주당에 석유화학 산업 국비 지원 건의

**산업위기지역 연장 등 4대 현안 제시**
**소상공인·중기 등 민생 안정 대책도**

최근 여수 국가산단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현장 간담회 모습. 〈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 국가산단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위원들에게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을 통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기간 연장 ▲위기지역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금 면제 ▲지방교부세법상 고용감소지역 보정률 확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연장 및 민생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시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을 통해 현행 2년인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이는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스페셜티와 친환경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에 필요한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위기지역 내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면제를 건의했다.

또한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고용감소지역에 지방교부세 보정률을 현행 120%에서 150%로 상향해 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연장과 연계해 여수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20%)와 재직자·실직자 대상 현금성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와 경영바우처 지원, 중소기업 수출·화재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함께 요청했다.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건의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침체와 중동발 위기라는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의 재도약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유동수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전남도 경제부지사, 지역 석유화학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위기 극복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 화순군, 하천·계곡·구거 내 불법점용 집중 단속

**국가·지방·소하천 등 463곳**

화순군은 5일 "하천·계곡·구거 내 불법 점용 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수조사와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자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하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추진됐다. 조사 대상은 관내 국가하천 1곳과 지방하천 62곳, 소하천 400곳을 비롯해 산림 내 계곡, 구거(도랑) 등 수계 전반이다.

군은 지난달 30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4월 중 추가 조사를 통해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호범 화순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건설교통실, 산림과, 읍·면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점검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군은 추가 조사 이후 계도 및 자진 철거 유도 기간을 거쳐, 하절기인 7-9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해 불법 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계곡 내 불법 영업 행위를 비롯해 무단 설치된 평상, 그늘막, 데크, 가설건축물, 불법경작 등이다.

현장 조사에서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마을 이장회의, 현수막, 금지 안내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주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도 장려할 계획이다.

박종옥 건설교통실장은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 "전통 문화 계승"…장성군 5월까지 '춘향제'

**필암서원·봉암서원 등서 제례**

장성군은 5일 "지역 내 서원과 사우 일원에서 5월까지 순차적으로 춘향제를 연다"고 밝혔다.

춘향제는 조선시대 유교 예법에 따라 매년 봄마다 선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올리는 제례다. 장성지역에선 유림과 군민들이 참여하는 전통문화 행사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지난달 향교 석전대제를 시작으로 지난 3일 필암서원, 7일 봉암서원, 14일 오산창의사, 20일 죽림서원, 27일 가산서원에서 제를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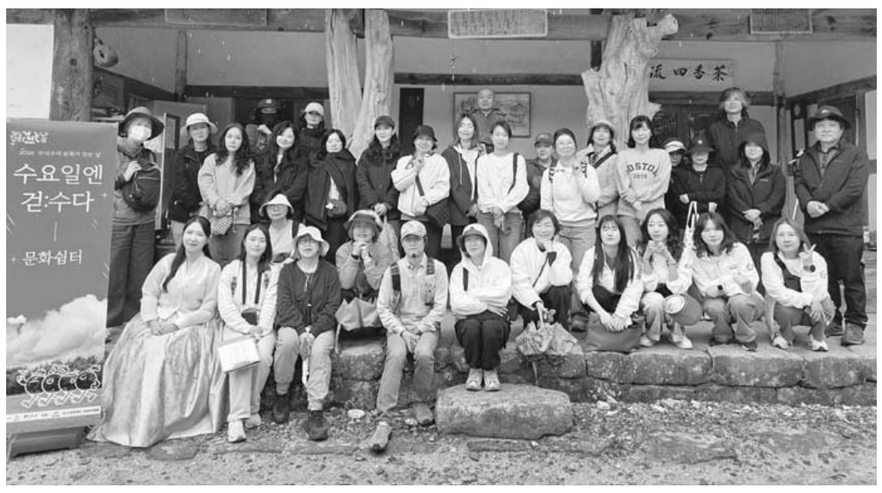
5월에는 1일 송계서원, 3일 고산서원, 6일 만곡사 등에서 제향이 이뤄진다.

이중, 필암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중 한 곳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장성 필암서원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립 교육기관으로 장성이 배출한 성리학자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1510-1560년) 선생을 배향하고 있다.

심우정 장성부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전승해 나갈 방침"이라며 "장성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 고흥 로컬푸드 직매장 '호응'

**농수산물·특산품 등 88개 품목 판매**

고흥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 농가와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고흥군에 따르면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개장했다.

이번에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 농산물을 당일 수확해 당일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매장에서는 총 88개의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양파·오이·파프리카·토마토·딸기·천혜향·키위·쌈채소·두릅 등 제철 신선 농산물을 비롯해 김·미역·다시마·전복·서대·민어·병어 등 지역 해산물도 함께 선보이며, 꿀, 된장, 고추장 등 다양한 가공 및 특산품도 판매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개장 초기임에도 방문객이 꾸준히 유입되며 안정적인 판매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참여 농가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중간 유통단계를 최소화해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선 농산물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고흥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군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매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 담양군, 산불방지 비상 대응 체계 강화

**'경계' 단계 발령…불법 소각 집중 단속**

담양군은 5일 "청명·한식 전후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

청명과 한식 기간은 급증하는 성묘객과 등산객으로 인해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

담양군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말 산불비상근무 체계를 전 부서로 확대하고, 읍면 산불 취약지에 산림재난대응단 등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 내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청명과 한식은 조상을 기리는 소중한 시기이지만, 사소한 실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구례 화엄사서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구례군은 5일 "지난 1일 천년 고찰 화엄사 일대에서 올해 첫 번째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는 화엄사의 역사와 생태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인문 탐방으로 꾸려졌으며, 참가자들은 전문 해설가 임현수씨의 안내를 따라 각황전 앞 홍매화와 수령 350년의 올벚나무, 들매화가 이어지는 경내 길을 걸었다.

또한 화엄사 경내의 고즈넉한 공간에서 해금 연주가의 라이브 공연이 펼쳐져 사찰의 고요한 공기를 타고 흐른 해금 선율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 구례군이 공동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전남문화재단, (사)큰산사람들이 주관한다.

화엄사 편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사성암, 천은사, 오래된 마을 길 등 구례 각지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자연 속 걷기를 통해 마음 회복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함께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CMYK